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결정 요인 분석*

마상진** 김강호***

Keywords

농촌주민(rural residents),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학습 참여(learning particip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to identify the related variable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in rural area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n 507 rural residents.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residents in remote rural areas had higher needs of lifelong learning for their limited learning opportunities than residents in suburban areas. Investigating barriers of lifelong learning and mainly accessed institutes in rural residents suggested that relevant learning information and rural residents-specific learning program design considering time and distance barriers were required for the expansion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in rural areas. The main factor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of rural residents were the computer-utilizing ability and learning needs, which implied a shortage of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a requirement of more public input for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교신저자가 2012년에 수행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평생학습정책’ 내용 일부를 추가로 분석한 내용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 msj@krei.re.kr.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최근 각종 국가 정책에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존의 관 주도적 접근과는 대비되는 민간 자율의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접근방식에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능력·기회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주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5년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농촌지역개발 핵심 리더 양성’,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인력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인력육성과 개별 사업의 연계 강화’, ‘외부 지원그룹의 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제2기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7대 부문의 하나로 포함되어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인적자원 확충’,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역량개발을 위한 시도들이 관 주도로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소수 지역 리더들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작 주민 다수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개발과는 먼 또 다른 하향식 접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정섭, 마상진, 권인혜 2009).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 즉 주민들이 일상에서 학습 생활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점차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논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생학습과 농촌개발 활동의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지역주민이 변해야 하며, 지역주민은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평생학습 정책이 200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2002년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008년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학습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는 평생학습 전담기관(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면서 체계화된 평생학습정책은 평생학습도시사업, 대학평생교육사업, 성인문해교육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역량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과학기술부 2008).

농촌의 주민들은 도시보다 고령화¹되어있고, 계절적 경제활동 참여 편차가 큰 농업 종사인구가 많으며²,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아³ 도시와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촌의 평생학습 여건은 도시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하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평생학습 대상자의 12.6%가 군지역에 있지만, 평생학습기관의 5.5%만이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평생학습기관은 민간 주체의 참여가 부족하고, 관련 종사자도 턱너하지 못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도시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⁴(마상진, 조미형, 한영광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참여 정도 및 투자)와 관련한 특성 변수들을 분석하여 농촌 평생학습 정책 사업 개선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접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 첫째,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유형별(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 둘째,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된 개인 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을 구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학습의 개념과 참여 요인

평생학습은 개개인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실어주는 지속적인 지원과 정으로서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Longworth & Davies 1996; 정철영 2008)으로, 평생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등과 호환되어 정책적·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평생학습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학습 활동이 얼마나 의도적(intentional)이고 계획적(planned)인 것이냐⁵에 따라 크게 형식(formal) 학습, 비형식(non-formal) 학습, 무형식(informal) 학습으로 나뉜다. 형식 학습은 일반적으로 엄밀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는

1 평생학습대상자(15~64세 성인) 중 동지역의 경우 55세 이상이 16.4%인 데 비해, 면지역은 28.53%(통계청 2010a)임.

2 도시민의 경우 월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2~74%대에서 안정적인 반면에, 농어촌주민의 경우는 12~3월의 경우 76% 이하이고, 4~11월은 78%이상(통계청 2010b)임.

3 동지역의 경우 중졸자 이하가 14.5%인 데 비해, 면지역은 36.9%(통계청 2010a)임.

4 농촌에는 평생교육기관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비중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대도시의 경우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비중은 29.4%, 중소도시는 30.8%였지만, 농어촌은 18.6%였음(교육과학기술부 2011).

5 구체적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도성, 계획과 구조화의 정도, 평가와 인증의 정도 등 20여 가지 요인들이 학습 방식의 구분에 작용함(Colley 등 2002).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을 의미하고, 비형식 학습은 사회단체와 같은 특정 관심사를 다루는 기관을 통해 특정 내용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을 의미한다. 반면 무형식 학습은 ‘우발적 학습(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계획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학습을 의미한다(마상진 2008).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과 관련하여 김영화(2001)는 돈이나 시간과 같은 ‘상황적 장애’,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는 방식에 관련된 ‘구조적 장애’, 자신감 및 동기 등 ‘성향면에서의 장애’로 구분하였고, OECD(2003)는 ‘시간관리(time management)’, ‘훈련의 특성(nature of training)’, ‘개인적 상황(personal situation)’으로 구분하였다(임언 2005).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 관련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부족(36.1%), 일이 너무 많아서(17.4%),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15.4%)과 같은 시간관리 요인이 가장 많고, 훈련의 특성에 해당되는 요인으로는 비용(23.3%), 마음에 드는 강좌가 없어서(12.8%),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2.2%) 순으로 많았으며, 개인적 상황 요인으로는 고용주의 지원 부족(10.2%)이 가장 많은 이유였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가족부양 책임 때문)’이 78.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42.8%)’, ‘근무시간과 겹쳐서(26.3%)’ 순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의 경우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에 비해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71.7%)’ 참여에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마상진(2006)은 Emmalou Van Tilberg(1992) 등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의 교육 참여에는 교육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참여 장소까지의 거리와 도달하는 시간 등 경제·물리적 요인인 상황 요인, 교육기관 신뢰성, 강사의 신뢰성, 교육 내용, 교육 전달방식, 교육 시간의 적절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교육 운영과 구성 관련 요인인 기관 요인, 그밖에 교육생의 교육 수준, 나이, 성별, 수입 등 교육 참여자의 개인 특성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교육생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개인의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등과 같은 개인 성향 요인들이 있다고 하였다.

2.2.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관련 선행연구 고찰

권정숙(2005)은 ‘농촌여성의 평생학습 인식 및 요구 분석’ 연구에서 농촌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와 평생교육 경험이 매우 낮지만,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참여 의향은 매우 높으며, 여성평생교육의 인식과 경험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격차뿐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상 군부와 읍·면부에 따라 격차가 있다고 하였다. 농촌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공공형 교육기관이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직업교육훈련과 건강스포츠 교육이라고 하였다. 한편 농촌지역 여성들은 평생학습을 학교교육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공동체적 의식에서 출발하고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으로서의 학습이라는 인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정현옥(2006)은 ‘도시형과 농촌형 평생학습도시 운영 모델 비교 연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며, 학습도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의 현 상황과 요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산지원에 있어 확실적인 지원이 아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에는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김남선 등(2007)은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유형에 적합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형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부족하므로, 농촌지역의 평생학습시설을 읍·면단위 중심으로 건립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의 근접성을 확보하고, 각종 매체 또는 모임을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경(2008)은 ‘농촌 벽지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사례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아실현의 효과 측면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으로 학습의지가 향상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자기 미래 재설계의 계기도 되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의 변화로 평생학습을 자신의 생활에서 중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의 실천적 방향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농촌맞춤형 프로그램의 진행, 고령자가 많고 보수성향이 높아 배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계몽 차원의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인식 전환 유도, 읍·면 사무소, 학교,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들이 읍·면

또는 마을 단위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점 시설 활용, 문화탐방, 녹색장터, 나눔잔치 등과 같이 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박혜영(2009a)은 ‘DEA분석을 이용한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효율성 비교평가’ 연구에서 평생학습도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이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예산, 인력 측면에서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평생학습도시 이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혜영(2009b)은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질 측정’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프로그램 이용 후 주민만족도가 도시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농촌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무료강의가 많고 읍·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친밀도가 높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진화(2009)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실태분석과 운영모델개발’ 연구에서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접목한 농촌지도사업을 강조하면서, 농촌활력화를 위한 교육·복지·문화·과학의 통합, 농촌여성의 참여 확대와 지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풍토의 미성숙 타파, 농촌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증대,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목적 다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진단 결과, 낮은 접근성, 장년층 농촌여성의 낮은 참여율, 특성 조직(생활개선회) 중심의 참여자 편중, 전문강사 부족, 교양 이외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화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 및 특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과 연계되고, 일회성에서 탈피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의 생활화, 자격증 및 학습계좌제, 학습은행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들이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아직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주요 개인 및 거주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정도와 평생학습 투자(시간 및 비용)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평생학습 중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에 국한하였다. 형식 학습은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로 대학을 포함한 학교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학습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식 학습의 경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이나 주변 환경의 여건보다는 개인적 목표나 의지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주민의 역량개발 관점은 단순히 학위취득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을 넘어 농촌개발에 필요한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학교교육 외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식 학습을 제외하고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만을 다루었다.

농촌주민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의 통계적 일반 특성과 함께 컴퓨터 활용능력과 학습 욕구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농촌의 거주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유형(도시근교,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지역규모(읍, 면), 지역권역(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에 대한 참여 정도(참여 빈도)와 관련 평생 학습 투자 정도(시간 및 비용)로 하고, 설명변수로 농촌주민의 개인 특성과 3개의 거주지역 특성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의 모집단은 19세 이상 농촌주민(읍·면지역 거주자)이다. 표본은 지역할당표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조사원이 가구 방문을 통해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크기는 500명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507명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57.6%, 연령별로는 20~30대가 12.8%, 40대가 19.3%, 50대가 29.2%, 60대 이상이 38.7%였다. 지역별로는 도시근교가 19.5%, 평야지역이 20.1%, 중·산간지역이 60.4%이며, 면지역이 57.8%였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가 30.2%, 중졸이 20.3%, 고졸이 35.5%, 대졸 이상이 14.0%였다.

표 1.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 권역	경기/강원권	130	25.6	지역 유형	도시 근교	99	19.5
	충청권	125	24.7		평야지역	102	20.1
	전라권	125	24.7		중·산간지역	306	60.4
성별	경상권	127	25.0	거주지 규모	읍지역	214	42.2
	여성	292	57.6		면지역	293	57.8
	남성	215	42.4	학력	초졸 이하	153	30.2
연령	20~30대	65	12.8		중졸	103	20.3
	40대	98	19.3		고졸	180	35.5
	50대	148	29.2		대졸 이상	71	14.0
	60대	196	38.7	전체	507	100.0	

3.3. 조사도구

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질문지는 농촌주민의 개인 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 부문과 평생학습 참여 조사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특성 조사부문은 성별, 연령, 학력, 연소득 규모,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학습 욕구 등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한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거주지역 특성 조사 부문은 지역유형, 지역권역, 거주지 규모를 조사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조사 부문은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참여 정도,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시간 및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문항의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개인 특성	성별	-	여성=1, 남성=2
	연령	-	20~30대=1, 40대=2, 50대=3, 60대=4
	학력	-	초졸 이하=1, 중졸=2, 고졸=3, 대졸 이상=4
	연소득규모	가구의 연간 소득규모	5백만 원 미만=1, 5백~2천만 원 미만=2, 2천~3천만 원 미만=3, 3천~5천만 원 미만=4, 5천만 원 이상=5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 -1단계: 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 -2단계: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 -3단계: 컴퓨터 오류 시 SW/HW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 가능	활용능력 없음=1, 1단계 수준=2, 2단계수준=3, 3단계 수준=4

구분		내용	비고
	학습 욕구	평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	11단계 리커트 척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다(0)~배우고 싶은 욕구가 매우 많다(10)
거주 지역 특성	지역유형	-	도시근교=1, 평야지역 농촌=2, 중·산간지역 농촌=3
	지역권역	-	경기·강원권=1, 충청권=2, 전라권=3, 경상권=4
	거주지 규모	-	읍단위=1, 면단위=2
평생 학습	참여 정도	비형식 학습 참여 빈도	- 문해교육 - 직업 관련 능력향상교육 - 인문교양교육 - 문화예술교육 - 시민참여교육 - 스포츠·건강교육 지난 1년간 참여 빈도: 참여 안함=0, 1~2회=1, 3~5회=2, 6~9회=3, 10회 이상=4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	- 가족, 친구 또는 동료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 - 컴퓨터, 인터넷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정보나 사실 학습 - 학습을 목적으로 TV, 라디오, 비디오 활용을 통한 학습 경험 없음=0, 아주 가끔=1, 가끔씩=2, 자주하는 편=3, 매우 자주=4
	참여 시간	연간	- 책이나 전문잡지 등을 활용한 학습(연간) 경험 없음=0, 1~3권=1, 4~6권=2, 7~9권=3, 10권 이상=4
		연간	- 역사적·자연적·산업적 장소 방문을 통한 학습(연간) - 학습센터(도서관 등) 방문을 통한 학습(연간) 경험 없음=0, 1~3회=1, 4~6회=2, 7~9회=3, 10회 이상=4
	학습 투자	연간 개인이 투자하는 시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연간 개인이 투자하는 시간 없음=0, 10시간 미만=1, 10~19시간=2, 20~29시간=3, 30~49시간=4, 50~99시간=5, 100~149시간=6, 150~200시간=7, 200시간 이상=8
		연간 개인 부담 비용	학습이나 교육을 위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음=0, 5만 원 미만=1, 5~10만 원 미만=2, 10~25만 원 미만=3, 25~50만 원 미만=4, 50~100만 원 미만=5, 100~200만 원 미만=6, 200~500만 원 미만=7, 500만 원 이상=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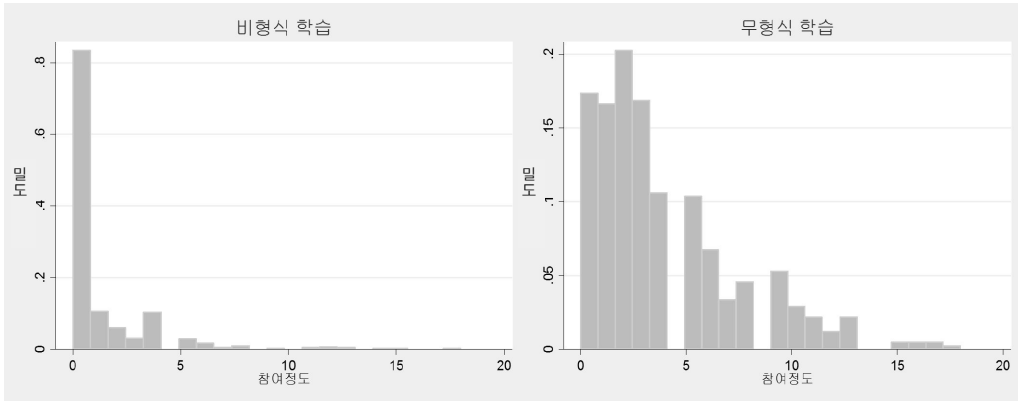
3.4. 자료특성 및 분석방법

평생학습 참여 그리고 평생학습 투자(참여 시간, 개인부담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은 SUR모형(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두 개의 종속변수, 즉 평생학습 참여 정도의 경우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 그리고 평생학습 투자의 경우 학습 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에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동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Ahmed, Hussin & Hanif 2010).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참여 빈도,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에 대해 투입된 설명변수 외에 관측되지 않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해 두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평생학습 참여 빈도에 대해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 중에 학습 참여 빈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가 존재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에의 참여 빈도,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에는 학습에 대한 태도, 의지 등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내재적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에 대한 두 개의 회귀식,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에 대한 두 개의 회귀식에서는 각 오차항 간의 상관성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은 포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참여 정도의 경우, 참여 빈도에 대해 구간별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표 3>. 비형식 학습 참여 빈도에 대한 값은 6개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참여 빈도를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즉 6개 유형 모두 ‘참여안함’으로 응답한 경우 0에서부터 모든 유형에 ‘10회 이상’ 참여한 경우인 24까지의 값을 가진다.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 역시 6개 항목에 응답 값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각 학습유형별로 응답 예가 차이는 있지만 응답 범주(1~4)에는 차이가 없기에 분석 편의상 상호 단순 합산을 하였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 6개 항목 모두 ‘경험없음’으로 응답한 경우인 0에서부터 최고 24까지의 값을 가진다. 이처럼 평생학습 참여 정도는 참여 빈도에 대한 범주형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엄격히 가산자료(count data)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림 1>과 같이 질문문항의 특성상 응답치가 가산자료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분포 역시 가산자료로 활용하여도 분석 결과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자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아송 회귀모형⁶을 활용하였다.

6 경험횟수와 같이 정수를 종속변수로 가진 많은 경우, 0, 1, 2에 상당수 관측치가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경우 OLS 보다는 포아송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우석진 2013)

그림 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빈도 분포



평생학습 참여 빈도에 대한 이변량 포아송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θ_{1i} 와 θ_{2i} 는 i 의 각 종속변수의 기댓값(expected values) $E(y_{1i}|X_{1i})$, $E(y_{2i}|X_{2i})$ 이며, 추정계수 β_1 , β_2 와 외생변수 X_{1i} , X_{2i} 의 지수함수가 된다(King 1989)⁷.

- (1) $E(y_{1i}|X_{1i}) = \theta_{1i} = \exp(\beta_1 X_{1i})$
- (2) $E(y_{2i}|X_{2i}) = \theta_{2i} = \exp(\beta_2 X_{2i})$

한편, 관측된 종속변수 y_{1i} 과 y_{2i} 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 y_{1i}^* , y_{2i}^* 와 위의 두 식에서 동일한 공변량 μ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 $y_{1i} = y_{1i}^* + \mu, i = 1, 2, \dots, n$
- (4) $y_{2i} = y_{2i}^* + \mu, i = 1, 2, \dots, n$

여기서 y_{1i}^* , y_{2i}^* , μ 는 각각 기댓값 λ_{1i} , λ_{2i} , ξ 의 이변량 포아송 분포를 가지며, $y_{1i}^* \sim Poisson(\lambda_{1i})$, $y_{2i}^* \sim Poisson(\lambda_{2i})$, $\mu \sim Poisson(\xi)$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y_{1i}^* , y_{2i}^* , μ 의 세 개의 무선변수는 관측된 모든 i 뿐만 아니라 다른 표본($i \neq j$)과도 상호 독립적이며, 따라서 상관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y_{1i} 과 y_{2i} 도 $\theta_{1i} = \lambda_{1i} + \xi$, $\theta_{2i} = \lambda_{2i} + \xi$, $Cov(y_{1i}, y_{2i}) = \xi$ 의 모수를 갖는 이변량 포아송

⁷ 식(1)과 (2)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ln(E(y_{ij}|X_{ij})) = \beta_j X_{ij}$ 를 포아송 로그선형모형(Poisson loglinear model)이라 말함. 여기서 i 는 관측된 표본을, j 는 각각 식(1)과 (2)를 나타냄.

(bivariate Poisson) 분포이다(Kocherladota & Kocherlakota 1992).

포아송 회귀모형에 외생변수에 의해 조건화된(conditioned) 두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음수가 아니어야 하며, 각 한계분포의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과 변량(conditional variance)이 같다는 제약이 있다. 회귀계수의 추정은 외면상 무상관 포아송 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의 우도함수를 통해 동시적 추정(simultaneous estimation)을 하게 된다. 그리고 두 조건화된 가산자료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5) \text{Corr}(y_{1i}, y_{2i}) = \xi / \sqrt{(\lambda_{1i})(\lambda_{2i})}$$

평생학습 투자(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에 대한 분석은 토빗모형(tobit model)을 활용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비용이 없는 경우(=0)에 좌측절단(left-censoring)된 자료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차항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절단형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토빗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두 개의 회귀모형 역시 오차항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외면상 무상관 이변량 토빗회귀모형(seemingly unrelated tobit regression model)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y_{ij}^* = \beta_j X_{ij} + u_{ij}, \quad y_i = \begin{cases} y_i^* & \text{if } y_i^*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i = 1, 2, \dots, n; j = 1, 2$$

여기서 오차항은 평균이 0이며, y_{1i}^* 과 y_{2i}^* 는 각각 변량 σ_1^2 , σ_2^2 와 공변량 σ_{12} 을 갖는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한다. 또한 식(5)는 GHK 알고리즘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최대우도 추정법(MSL(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모수 및 변량-공변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두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는 $\rho = \sigma_{12} / \sigma_1 \sigma_2$ 이 된다.

$$(7) \begin{pmatrix} u_{1i} \\ u_{2i} \end{pmatrix} \sim N \left[\begin{pmatrix} 0 \\ 0 \end{pmatrix}, \begin{pmatrix} \sigma_1^2 & \sigma_{12} \\ \sigma_{21} & \sigma_2^2 \end{pmatrix} \right]$$

4. 연구 결과

4.1.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관련하여 학습 욕구, 학습유형별 참여 여부, 주요 참여 기관, 참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평생학습 욕구 조사결과, 농촌주민의 평소 배우고 싶은 욕구는 5.71로 보통수준(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주민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지역유형과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유형별로 보면, 중산간 지역의 경우 5.95, 도시근교는 4.89로 도시와의 격리수준이 높은 지역의 농촌주민이 평소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편 학력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은 6.14, 초졸이하는 4.92로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 욕구가 높았다. 학습경험이 많고 인적자본이 축적된 농촌주민이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5,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7.06, 5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5.00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농촌주민일수록 학습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안정된 농촌주민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욕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농촌주민의 학습 욕구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5.71	2.222	
성별	여성	5.70	2.095	-.158
	남성	5.73	2.388	
연령	20~30대	6.48	1.888	.025
	40대	5.90	2.083	
	50대	6.25	2.273	
	60대	4.96	2.141	
지역유형	도시근교	4.89	1.999	8.903***
	평야지역	5.79	1.900	
	중·산간 지역	5.95	2.330	
거주지 규모	읍지역	5.69	2.230	-.177
	면지역	5.73	2.219	

		평균	표준편차	t/F
학력	초졸 이하	4.92	2.221	9.966***
	중졸	5.99	2.294	
	고졸	6.06	2.042	
	대졸 이상	6.14	2.153	
소득수준	500만 원 미만	5.00	2.477	4.271**
	500만~2,000만 원 미만	5.40	2.311	
	2,000만~3,000만 원 미만	5.82	2.173	
	3,000만~5,000만 원 미만	6.03	2.000	
	5,000만 원 이상	7.06	1.749	

주: 학습 욕구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다(0)'부터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매우 많다(10)'까지 11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음.

p<0.01 *p<0.001

학습유형별 평생학습 참여 여부를 보면 농촌주민은 비형식 학습보다 무형식 학습에 참여가 활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5.8%가 무형식 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비형식 학습의 경우에는 31.8%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중 어떤 것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13.4%였고, 비형식 학습에만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0.8%였다. 무형식 학습에만 참여한 경우는 54.8%, 그리고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0%였다.

표 4.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현황

학습유형	참여자(명)	백분율(%)	참여유형	빈도(명)	백분율(%)
비형식 학습	161	31.8	비형식/무형식 학습 모두 참여	157	31.0
			무형식 학습만 참여	278	54.8
무형식 학습	435	85.8	비형식 학습만 참여	4	0.8
			학습 참여경험 없음	68	13.4
전체	507	100.0	계	507	100.0

농촌주민들이 새로운 정보습득이나 학습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마을단위 공동시설, 2순위로는 읍·면단위 공동시설, 그리고 3순위로는 시·군 복지관 및 복지회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1~3순위로 응답한 기관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읍·면단위 공동시설이 5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단위 공동시

설이 41.4%, 그리고 시·군 복지관 및 복지회관이 34.54%로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지역 공동시설이나 복지관·복지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시·군 문화원 및 문화회관(30.4%), 시·군 평생학습시설(27.2%)도 많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5. 평생학습 참여 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시·군 평생학습시설	42 (8.3)	49 (11.0)	47 (13.6)	138 (27.2)
시·군 문화원/문화회관	60 (11.8)	60 (13.4)	34 (9.8)	154 (30.4)
시·군 복지관, 복지회관	70 (13.8)	47 (10.5)	58 (16.8)	175 (34.5)
대학교	7 (1.4)	10 (2.2)	15 (4.3)	32 (6.3)
시·군 농업기술센터, 보건의	43 (8.5)	29 (6.5)	39 (11.3)	111 (21.9)
초·중·고등학교	16 (3.2)	13 (2.9)	6 (1.7)	35 (6.9)
읍·면단위 공동시설	94 (18.5)	119 (26.6)	48 (13.9)	261 (51.5)
마을단위 공동시설	105 (20.7)	63 (14.1)	42 (12.1)	210 (41.4)
직장	10 (2.0)	7 (1.6)	-	17 (3.4)
시설학원	7 (1.4)	3 (.7)	9 (2.6)	19 (3.7)
종교시설	20 (3.9)	23 (5.1)	26 (7.5)	69 (13.6)
인터넷 강의	24 (4.7)	14 (3.1)	11 (3.2)	49 (9.7)
학습동아리	1 (.2)	4 (.9)	4 (1.2)	9 (1.8)
개인교습	8 (1.6)	6 (1.3)	7 (2.0)	21 (4.1)
합계	507 (100.0)	447 (100.0)	346 (100.0)	1300 (256.4)

주 1): ()는 백분율(%)

2): *는 1~3순위의 응답치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임.

농촌 주민들의 평생학습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15.6%)’,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5.4%)’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서(2.0%)’,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7.3%)’,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3.6%)’,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8.3%)’ 등 평생학습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제약, 혹은 개인의 학습능력으로 인한 이유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농촌주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한 학습을 할 만한 시간의 부족⁸이나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역량 부족 문제, 그리고 정보의 미스매치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평생학습 미참여 이유

	빈도(명)	백분율(%)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3	0.6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서	10	2.0
회사의 지원이 부족해서	1	0.2
근무시간과 겹쳐서	40	7.9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37	7.3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	18	3.6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79	15.6
시간이 없어서	197	38.9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	42	8.3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78	15.4
인원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2	0.4
합계	507	100.0

4.2. 평생학습 참여 정도와 투자 결정 요인

평생학습 참여 정도가 농촌주민의 개인 특성과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형식 학습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참여 빈도가 낮았으며, 20~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참여 빈도가 낮았으나 60대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도시근교보다는 중산

8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에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직장생활에 따른 시간부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근무시간과 겹쳐서’라는 항목에는 7.9% 정도만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직업생활로 인한 시간제약보다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시간 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충분한 학습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주민이 평생학습을 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의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간 지역의 농촌주민의 비형식 학습 참여 빈도가 높았으며, 지역규모(읍, 면)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소득수준 역시 비형식 학습 참여 빈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에 비해 고졸 및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빈도가 낮았다. 반면 컴퓨터 활용능력은 비형식 학습 참여 빈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는 농촌주민에 비해 1단계 수준(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 2단계 수준(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의 능력을 지닌 농촌주민의 참여 빈도가 높았다. 또한 평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습득에 대한 욕구가 높은 농촌주민 역시 비형식 학습의 참여 빈도가 높아 비형식 학습의 참여가 연령대, 거주지역의 유형, 컴퓨터 활용능력, 학습 욕구 등과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형식 학습 참여 정도에서는 비형식 학습과 달리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의 경우에는 비형식 학습과 마찬가지로 청년층(20~30대)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참여 빈도가 낮았다. 지역유형은 도시근교보다는 평야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참여 빈도가 낮았으며, 중산간지역 농촌주민의 경우에는 도시근교지역 농촌주민과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에 비해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가 높았다. 소득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비형식 학습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무형식 학습의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농촌주민에 비해 그 이상의 소득수준을 지닌 농촌주민의 학습참여 빈도가 낮았다. 반대로 학력의 경우에는 비형식 학습과 달리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컴퓨터 활용능력과 학습 욕구는 비형식 학습과 마찬가지로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거주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강원권에 비해 충청권 지역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라권과 경상권의 경우에는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모두 참여 빈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특성은 도시근교나 읍 단위 거주 특성보다는 수도권과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가 평생학습 참여에 중요한 변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참여 빈도에 대한 두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는 0.255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정도와 개인·거주 특성 변인의 관계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개인특성	성별 (준거=여성)	남성	-0.554** (0.204)	-0.082 (0.070)
	연령 (준거=20~30대)	40대	-0.718* (0.318)	-0.233* (0.102)
		50대	-1.000** (0.328)	-0.303** (0.097)
		60대	0.242 (0.291)	-0.257† (0.141)
	학력 (준거=초졸 이하)	중졸	-0.235 (0.238)	-0.094 (0.131)
		고졸	-0.579* (0.278)	0.024 (0.135)
		대졸 이상	-1.202* (0.463)	-0.066 (0.162)
	연소득 (준거=500만 원 미만)	500만~2,000만 원 미만	-0.249 (0.310)	-0.290* (0.140)
		2,000만~3,000만 원 미만	-0.328 (0.356)	-0.541*** (0.135)
		3,000만~5,000만 원 미만	-0.037 (0.308)	-0.345* (0.137)
		5,000만 원 이상	-0.343 (0.437)	-0.017 (0.159)
	컴퓨터 활용능력 (준거=능력없음)	1단계	0.473† (0.267)	0.451*** (0.110)
		2단계	1.199*** (0.300)	0.651*** (0.122)
		3단계	-0.614 (0.716)	0.851*** (0.168)
학습 욕구			0.342*** (0.065)	0.086*** (0.018)
거주지역 특성	지역유형 (준거=도시근교)	평야지역	0.197 (0.689)	-0.185* (0.093)
		중·산간 지역	1.419* (0.671)	-0.150 (0.116)
	지역규모 (준거=면지역)	면지역	0.234 (0.208)	0.155* (0.073)
	지역권역 (준거=경기·강원권)	충청권	0.148 (0.334)	0.170 (0.117)
		전라권	-2.453*** (0.688)	-0.406** (0.138)
		경상권	-0.699** (0.236)	-0.222† (0.122)
상수			-2.378** (0.872)	1.239*** (0.248)
σ_1		3.749		
σ_2		7.014		
ρ		0.255***		

†p<0.1, *p<0.05, **p<0.01, ***p<0.001

연간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개인부담 비용을 토빗모형에 따라 동시적 추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생학습 참여 시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0~30대 농촌 주민에 비해 40대, 50대 농촌주민의 학습참여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도시근교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보다는 평야지역이나 중산간지역에 사는 농촌주민들의 학습참여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연소득을 지닌 농촌주민에 비해 500~2,000만 원 미만, 2,000~3,000만 원미만의 연소득을 지닌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능력에서는 활용능력이 없는 농촌주민에 비해 1단계 수준(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을 지닌 농촌주민의 학습참여 시간이 높았으나 그 이상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학습 욕구는 평생학습 참여 시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평생학습에 투자되는 개인부담 비용의 경우 참여 시간과 일부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학습참여 시간과 달리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소득의 경우도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 컴퓨터 활용능력에서는 무형식 학습과 달리 능력수준이 높은 농촌주민이 활용능력이 없는 농촌주민에 비해 평생학습에 지출하는 개인부담 비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농촌주민이 비형식 학습보다는 무형식 학습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 정보자료 구입을 위한 컴퓨터의 활용능력 수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평생학습 투자와 개인·거주 특성변인의 관계

			참여 시간	개인부담 비용
개 인 특 성	성별 (준거=여성)	남성	0.512 (0.408)	0.206 (0.392)
		연령 (준거=20~30대)	40대	-1.478* (0.716)
	50대		-1.338† (0.719)	-0.865 (0.629)
	60대		-0.313 (0.895)	0.135 (0.833)
	학력 (준거=초졸 이하)	중졸	0.372 (0.658)	-0.147 (0.669)
		고졸	1.077 (0.741)	-0.064 (0.728)
		대졸 이상	1.215 (0.911)	0.911 (0.865)

		참여 시간	개인부담 비용	
	연소득 (준거=500만 원 미만)	500~2,000만 원 미만	-2.241** (0.768)	-0.618 (0.732)
		2,000만~3,000만 원 미만	-1.951* (0.817)	-1.377† (0.790)
		3,000만~5,000만 원 미만	-0.484 (0.878)	0.591 (0.821)
		5,000만 원 이상	0.889 (1.204)	1.919† (1.068)
	컴퓨터 활용능력 (준거=능력없음)	1단계	1.135* (0.554)	2.000*** (0.546)
		2단계	0.442 (0.717)	2.763*** (0.680)
		3단계	0.310 (1.063)	2.992** (0.933)
학습 욕구		0.492*** (0.105)	0.347** (0.102)	
거주 지역 특성	지역유형 (준거=도시근교)	평야지역	3.985*** (0.664)	4.599*** (0.762)
		중·산간 지역	1.645* (0.702)	3.585*** (0.801)
	지역규모 (준거=면지역)	면지역	-0.041 (0.394)	0.097 (0.374)
	지역권역 (준거=경기·강원권)	충청권	-2.136** (0.738)	-0.791 (0.676)
		전라권	-1.195† (0.724)	-0.349 (0.678)
		경상권	-3.416*** (0.604)	-3.149*** (0.640)
상수		-2.166 (1.505)	-6.920*** (1.603)	
σ_1		3.573		
σ_2		2.902		
ρ		0.726***		

†p<0.1, *p<0.05, **p<0.01, ***p<0.001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농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농촌 개발 활동에 농촌주민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특성들이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촌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는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높다. 평생학습 욕구 조사 결과, 농촌주민의 평소 배우고 싶은 욕구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지만, 지역유형별로 중산간 지역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욕구가 높았다. 여기서 주목해 볼 사항은 도시근교 지역보다 중산간 지역주민의 학습 욕구가 높다는 사실인데, 평소 도시와 접촉이 용이한 지역의 농촌주민은 여러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 평생교육 시설 등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은 반면, 이러한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가 평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평생학습 참여 정도도 도시근교 주민보다 중산간 지역주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효과가 크다는 관점의 선행연구(박혜영 2009a)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농촌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 정보 제공과 더불어 농촌주민의 거리·시간 접근성을 고려한 정교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장애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신체적 능력(건강, 나이), 관련 정보 부족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농촌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농촌주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기관들이 주로 근접거리 시설(읍면단위 혹은 마을단위 공동시설)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부족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근거리)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 즉 학습시간대의 적절한 배치(설계)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주민들이 학습정보부족으로 인해 학습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컴퓨터 활용능력과 학습 욕구가 평생학습 참여와 투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분석 결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농촌주민의 학습 참여 정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습득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비형식 학습보다는 무형식 학습이 많은 것에서 볼 때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독서, 동료와의 지식공유, 영상매체 등을 통한 학습 역시 관련 정보와 지식습득을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얻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학습 욕구 역시 평생학습 참여를 설명해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였는데, 비형식·무형식 학습 모두 학습 욕구가 높은 농촌주민이 학습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 시간 및 개인부담 비용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는 자발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주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는 농촌주민의 개인적 요구 및 지역발전이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평생학습 대상자 대비 평생학습시설 배치가 절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적을 뿐 아니라 평생학습 기관 증설 역시 최근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 적게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평생학습 대상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평생학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농촌의 내발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생학습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농촌주민들은 비형식 학습보다는 무형식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며, 젊은 층을 비롯해 높은 학습 욕구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지닌 농촌주민들 위주로 평생학습 참여가 많이 이뤄짐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교통 및 IT 기술의 발달로 학습 욕구가 높고 학습 접근성이 용이한 농촌주민들은 학습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농촌주민의 학습 욕구 충족은 힘들어진다. 농촌정책이 농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보다 내발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학습시설 확충이나 개인의 학습비용 경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촌주민의 시각에서 농촌지역발전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학습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권정숙. 2005. “농촌여성의 평생학습 인식 및 요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205-224.
- 교육인적자원부. 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 김남선, 안현숙. 2007.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25-49.
- 김영화. 2001. “성인학습 기회와 참여의 형평성: 실태와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제7권 제1호, pp. 41-68.
- 김정섭, 마상진, 권인혜.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화, 고영화, 김소현. 2009.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사업의 학습자 만족도 가중치 부여 평가방식의 유효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4호, pp. 103-129.
- 마상진. 2008.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 『농업전망 2008』.
- 마상진. 2006.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요인.”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pp. 33-50.
- 마상진, 조미형, 한영광. 2012.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평생학습정책, 응급의료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혜영. 2009a. “DEA분석을 이용한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효율성 비교평가.”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2호, pp. 1-28.
- 박혜영. 2009b.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질 측정: Edu-Qual기법의 개발과 적용.” 『평생교육·HRD연구』, 제5권 제3호, pp. 23-52.
- 신은경. 2008. “농촌 벽지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사례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석진. 2013.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주) 지필미디어.
- 임언. 2005.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 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2008. “농업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인교육 발전방안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본개발』, 제40권 제2호, pp. 1-31.
- 정현옥. 2006. “도시형과 농촌형 평생학습도시 운영 모델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 통계청. 2010a. 「인구총조사」.
- 통계청. 2010b. 「경제활동인구조사」.
- Ahmed, Z., Hussin, A.G., & Hanif, M. 2010. “Generalized multivariate regression estimators for multi-phase sampling using multi-auxiliary variables.” *Pakistan Journal of Statistics* Vol. 26, no. 4, pp. 569-583.
- Colley, H, Hodkinson, P. & Malcolm, J. 2002. *Non-formal learning: mapping the conceptual terrain*. A Consultation Report, Leeds: University of Leeds Lifelong Learning Institute.
- Emmalou Van Tilburg, N. 1992. “Why adults participate?.” *Journal of extension* Vol. 30, no. 3, pp. 12-13.

King, G. 1989. A seemingly unre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 17, no. 3. pp. 235-255.

Kocherladota, S. & Kocherlakota, K. 1992. *Bivariate Discrete Distributions*. New York: Marcel Dekker.

Longworth, N, & Davies, K. 1996. *Lifelong learning*. London: Kogan Page.

OECD. 2003.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Paris.

원고 접수일: 2014년 07월 28일
원고 심사일: 2014년 08월 04일
심사 완료일: 2014년 09월 15일